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축일 · 성모성월
제33권 24호(다해) 2013.5.12

[묵상]



그리스도의 승천<지오토 디 본도네, 14c, 스크로베니 성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그분께서 떠나오셨던 하느님 오른쪽
저희가 머물 곳을 마련해놓으실
예수님의 본 고향.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저희를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주님에서
저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고
지금의 슬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의 기쁨을 위함이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선포,
수난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완성된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이 일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내세우시니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통해 완성될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쉽지가 않으니.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이영자 율리아
특전미사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정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정학순 발바라, 이숙자 루피나 & 홍숙녀 마리아 & 이용완, 이병찬 & 황득수, 장현숙 발바라, 이병완 마리아, 허정자 레지나 & 허동수 루스, 이용직, 이달자 마리아, 오재복 요셉 (생)이윤조 클라라, 정진권 요한, 정승지 세실리아, 고정민, 김연희 루시아, 엄정자 분다 & 이귀분 안나 & 박명자 크리스티나 & 김옥희 바울라, 박여숙 요안나, 박중용 시몬, 김성일 다미아노, 이효희 마리아, 임재화 안나 & 박순희 로사, 송기분 수산나, 최옥희 테레사 & 최기남 야고보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오 마우라 수녀,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1-11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가운데 하느님이오르신다. 나팔소리가운데 주님이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루카(Luke) 24,46-53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왕이신 나의 하느님	172	172
봉헌	377	272	266
성체	418	287	286
파견	324	어머님 은혜	32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교적 증거

하느님 말씀의 선포가 자신의 삶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해 온 사실입니다. 그리스
도교에서는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묵시 1,5; 3,14 참조) 진
리의 증인(요한 18,37 참조)이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온종으
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기간동안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무수한 증언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인 통치 아래에서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살고 복음을 찬란히 증언할 수 있었던 이들
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는 직접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주인보다 높
지 않다.’ 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
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
희 말도 지킬 것이다.”(요한 15,20).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전하
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많은 형제자매들의 증거에 대하여
온 교회와 함께 하느님께 찬미가를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겪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교회와 함께 감사를 표합니다. 동
시에,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
받거나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자
들에게도 깊은 연대감과 애정으로 일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에 대한 복음의 행
복 선언의 정신이 여기에서 실현됨을 봅니다(마태 5,11 참조).
이와 더불어, 국가 정부들이 모든 이에게 양심의 자유와 종교
의 자유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공격적으로 증언할 자유를 보
장하도록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예수님의 “가장 작은 형제들” 안에서 그분을 섬김(마태 25,40)
99).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더 깊
이 바라보도록 우리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인간 역사 전체가
하느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
의 앞으로 모일 것이다”(요한 25,31-32).

◀◆계속>

향주덕(向主德)인 믿음, 희망, 사랑

믿음이라고도 하는 신덕(信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당신과 진리를 알아듣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중에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신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죽으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도 하는 망덕(望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 목적으로 여기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느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망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망을 둘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도달할 곳은 주님이 계신 그곳 뿐입니다.

사랑이라고도 하는 애덕(愛德)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

에게 보내 주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단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나날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애덕은 증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덕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느님과 합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덕행들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부활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기까지와 맞물려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생활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인의 영적 여정은 신덕을 통하여 예수 부활대축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이 영적 여정은 망덕을 통하여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우리의 영적 여정의 종착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느님 대전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애덕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웃과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Happy Mother's Day!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안나희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레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제10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5월19일(주일) 오전 11시~오후5시,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올해부터 청백 구역변경이 있음)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상품 : 우승팀-가족당 스포츠가방, 준우승팀-가족당쌀1포
 - 경품 : 김치냉장고(1등), TV(2등), 뉴아이패드, 전기밥솥, 식사권/가방 등(3등)
 - 경품추첨대상 : 추천진행중 참석자로제한, 추천권 당일배포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문화체육분과장 ☎(310)926-2248

Happy Mother's Day!

- ◆ 체육대회날(19일 주일) 미사시간 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 10시 미사와 통합합니다.
- ◆ 제4회 구역대항 탁구대회
 - 일시 : 예선 오늘주일(12일) 오후 1시30분, 친교장
 - 경기방식 : 4개팀(토서, 토남, PV, 연합)이 리그전
 - 결승전 : 상위 2개팀이 체육대회날 경기
-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환영식 : 6월9일(주일)
 - 교리기간 : 6월13일~12월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전진성사 신청접수 중
 - 일시 : 6월2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교육 : 6월 6,7,8,9일(목 금 토 일) '성령안의 생활세미나'에 의무참석해야함, 6월22일 본당신부님 교육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2013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교회봉사자, 학교성적 우수한 학생
 - 신청마감 : 5월 31일 * 신청서 : 사무실
 - 장학금 지급 : 2013년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 백삼위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영적준비 : 성경읽기(투카복음, 사도행전 19,1-10, 로마서 8장, 코린토1서 11,12-14), 묵주의 9일기도(5월28일~6월5일)
 - 신청마감 : 5월26일 * 참가비 : \$30
 - 문의 : 강혜원 아녜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 명문대학 및 명문미대 진학세미나
 - 일시 : 오늘 주일(12일) 오후 2시 자모회 모임후 회의실
 - 대상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장정진 베로니카 ☎(310)713-7779

- ◆ 목요 그룹 성서 공부반 개설 예정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 안나회 5월모임 변경- '웃음치료' 특강
 - 일시 : 5월26일(주일) 오후 1시
 - 주제 :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 대상 :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
 - 강사 : 손상언 *문의:한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 요셉회 5월모임 변경
 - 일시 : 5월26일(주일) 낮미사후 2층 유아실
 - 문의 : 요셉회총무 김병태 요셉 ☎(310)999-1448

-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5월12일(어머니날) : 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아버지들이 피자 봉사)
 - 5월19일(본당체육대회) : 구역별 점심나누기
* 주일학교 : 수업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운철	김관기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성현	김영길	강운철	김관기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성길	김 용
	김 용	김원모	김정희	김종필	김주량	김철민	김종섭	김원모	김주량	김철민	김종섭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반비오	방정복	석순영	성필영
	반비오	방정복	배기엽	배태임	석순영	성필영	송재훈	신경훈	안민수	안종연	엄정자	우영희	이근모	이복임
	신경훈	안민수	안종연	엄영희	엄정자	우영희	이근모	이상석	이은록	이형삼	의 명	장영우	전정일	정동호
	이복임	이상석	이은록	이인두	이형삼	의 명	장영우	조준제	주용순	최길주	최재은	홍광선	황지영	
	전정일	정동호	조준제	주영석	주용순	최길주	최재은	현석주	홍광선	황지영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현석주	홍광선	황지영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합계 : \$5,945							합계 : \$3,940						
주일미사헌금: \$2,701.50	2차헌금 : \$1,124							감사헌금 : 이복임 정광미 최수복 석순영 이경태						

공지사항

◆ 주일학교 은총시장 도네이션 '절실합니다.'

- 은총시장 : 6월16일(주일)
- 대상 : 유치원부터 6학년
- 상품이나 물적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고등부(10학년) 견진성사

- 날짜 : 5월18일(토) 오전 10시,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참회예절 : 5월17일(금) 오후 7시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 교사 ☎(310)744-5878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내년부터 주일학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관계로 등록을 서둘러 주세요.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6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8일부터 등록비 인상(\$140, \$120, \$10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데미콜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90(5월19일 마감, 5월26일부터 \$25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KCRM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5월18일 오후 4시
- 장소 : LA 성삼한인 천주교회
- 강사 :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남가주성령봉사회지도/성삼주임)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5월18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 제26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5월30일(목)~6월2일(주일) 3박4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남가주성령봉사회지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분당 성령기도회 회장 및 봉사회총무 ☎(213)435-757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채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현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채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5/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본당 체육대회	
---------	--

교회가 가르치는 십자가의 의미

“저에게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의미로 다가오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로 죄수들을 처형하는데 사용했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잔을 겹세마니 동산에서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12항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늘진 곳으로 도망쳐 숨는 인간의 비참함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희생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식의 회복을 위해 온 밤을 지새우며 돌보는 어머니의 희생을 누가 고생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였고, 아들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필리 2,8 참조) 잃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되찾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힘없이 실패했다고 비웃습니다.

죽음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뒤따라겠다고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어리석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5)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초대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망이고 사랑의 절정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13항 참조)

세상의 문명은 눈부실 정도로 발달하여 길으로는 화려

함을 뽐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목표나 행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풍기지만 그 뒷맛은 몹시 쓴맛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이에게 하느님 나라의 좁은 문을 열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지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으며, 하와의 불신과 교만함을 치유하기 위해 마리아의 믿음과 겸손함이 십자가 아래 언제나 함께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이외에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어졌다.”(요한 19,30)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이세상의 어려움에 좌절할 때마다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끊임 없이 울려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자료: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 12억 1,459만명

-교황청 '교회 통계 연감 2011' 발표 -

한국 신자수 522만명...세계 47번째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발행한 2011년 판 「교회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1년 12월31일 기준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12억 1,359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 통계 2010년 11억 9,567만 1천 명에서 1,792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은 522만 명으로 세계 228개 국가에서 47번째로 신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주교 수는 5,132명, 사제 수는 41만 3,418명, 수도자 수는 76만 8,291명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 세례자 수는 1,675만 2,510명이며 그중 7세 미만의 유아세례자 수는 1,404만 5,207명으로 나타났다.

복수하고 싶다면 -

억울한 마음에 원망 깊었고, 친구에게 하소연도 했고, 청소기 돌리며 욕도 했지만, 그래도 분한 마음 삭히지 못해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겠노라 어금니 오도독 물던 어느날, 창가 꽃잎 지는 것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란 걸. 더 행복해지는 것이 제대로 된 복수라는 걸.

◆이영 아녜스 / 수필가